

 <b>국토교통부</b>	<b>보 도 자 료</b>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b>보다나온 정부</b>
	<b>배포일시</b>	<b>2019. 3. 26.(화)/</b> <b>총6매 (본문3, 참고3)</b>	
<b>담당 부서</b>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b>담당자</b>	• 과장 김용원, 사무관 김규희, 주무관 권영민 • ☎ (044)201-4232, 4238, 4236
	인천공항공사 스마트서비스팀	<b>담당자</b>	• 팀장 서은정, 과장 김호겸 • ☎ (032)741-5566, 6211
<b>보 도 일 시</b>		2019년 3월 27(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7.(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 “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 28일부터 인천공항 제주항공 이용객 대상 시범운영..5월까지 무료 서비스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주항공(대표 이석주)과 협업하여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
-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17.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 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되었다.
- \* 수하물 택배서비스: 수하물을 택배로 공항에 먼저 보내고 승객이 짐을 찾아 항공사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
- \*\* 도심공항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하는 방식

□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8일(목)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하여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해외사례) 영국의 에어포터(Airportr)사가 런던 히드로·게트윅 공항 출발 6개 항공사(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 핀에어 등)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자택접수 서비스 운영중('16년~ 하루 약 100건/ 이용료 4.5만원 수준)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 결과(붙임 참조)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중 이다.
-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 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규희 사무관(☎ 044-201-4238), 권영민 주무관(☎ 044-201-42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참고 1

## 이지드랍 서비스 포스터 및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 □ 포스터



### □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인천공항 이용객 승객 300명 대상)



## 참고 2

## 「이지드랍」 세부 운영 등

### □ 2019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부 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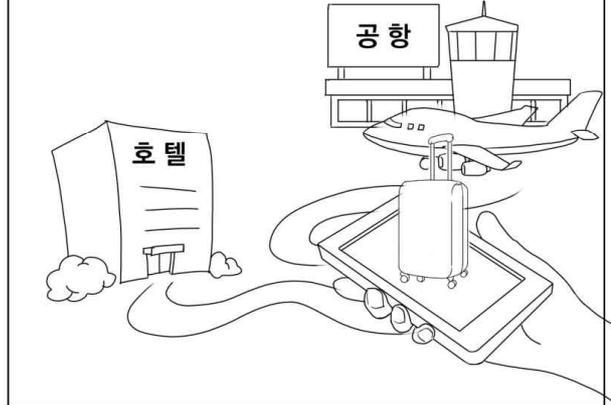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서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했습니다.



AFTER

'19년 3월 서비스참여 의사를 밝힌 항공사(제주항공)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제주항공 「이지드랍」 서비스 세부 운영 사항

항목	주요 내용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운터 운영시간 : 08:00 ~ 16:00 (월~금)</li> <li>• 운영 기간 : 3/28 ~ 5/31</li> <li>• 대상노선 : 미주노선(괌/사이판)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li> </ul>
수속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속 대상 : 당일 항공편 이용 승객</li> <li>• 수속 가능 항공편 : 당일 인천공항 출발 13시 이후 항공편</li> </ul>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송횟수 : 일 2회 (11시/16시 호텔 출발)</li> <li>• 인수인계 : 항공사 총괄책임자가 입회하여 물품하차 및 인수인계</li> </ul>